

CHAIRMAN'S STATEMENT 2014



이 인사말은 작년 10월 디노 카루시스의 후임으로 제가 회장이 되고서 드리는 첫 번째 인사이며, 우리 클럽의 업무에 지대한 공헌을 하신 전 회장 디노씨에게 이사진과 클럽을 대신해서 감사의 뜻을 전함으로 시작을 하고자 합니다.

탄탄한 결과 (A STRONG RESULT)

디노씨가 회장 자리에 올랐던 시기는 클럽과 클럽의 회원사 모두에게 정말 힘겨운 때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재임 기간 동안 저희 클럽은 최고의 선주 운영 P&I 보험 제공사라는 목표를 향해 성큼 다가섰습니다. 이번 재무 보고서에서 발표되는 훌륭한 결과는 바로 지난 5년 동안의 그의 지도력을 아주 잘 입증해 주고 있습니다.

올해 클럽에서는 유보금과 캐피탈을 3천 4백 달러로 증가시켰습니다. 따라서 클럽의 총자본과 하이브리드 캐피탈은 5억2천8백만 달러의 신기록을 세웠는데, 이는 기본 유보금 4억3천만 달러와 하이브리드 캐피탈 9천8백만 달러를 합계한 금액입니다. 이 결과는 2013보험연도의 증가한 클레임 비용에도 불구하고 탄탄한 언더라이팅 결과 및 4천4백만 달러(4.5%)의 투자 수익을 반영해 줍니다

이번 회계연도의 이재율 102%는 4년 연속으로 이재율이 100%에 근접하고 있음을 보여 줍니다. 이번 회계연도 리뷰에서도 언급되고 있지만 이재율은 오래된 정책 연도에 클레임 릴리스들과, 최근에는 2011년과 2012년 수치에 영향을 받아 계산 되었습니다. 이러한 릴리스들은 예상보다 좋았던 다수의 거액 상해 클레임에서 유래 되었습니다. 이전 계약연도의 여러 개선이 있었던 덕분에 상당한 지출을 감당하면서도 전반적인 클레임 보유금 수준을 고수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자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영두에 두어야겠습니다. 올해의 결과는 이미 2013년의 클레임 증가로 상쇄되었고, 2013년은 상반기 시점에서는 기록상 최고액을 지출한 연도 중 하나로 보였습니다. 하반기에 가서는 클레임이 줄어 들기는 했지만, 현재 예상되는 2013년도 최종 결과는 해상 업계가 호경기 동안 클레임 노출이 최고에 이르렀던 2007년 이후 가장 높을 것으로 보이며, 과거 5년 평균 클레임보다 25%가 더 높습니다. 올해의 전반적인 결과는 고무적이지만 지속적으로 클럽의 프리미엄이 P&I 클레임 인플레이션에 적절하게 대처 할수 있도록 꾸준히 준비해야겠습니다.

스탠더드 앤 푸어스 등급 (STANDARD & POOR'S)

저희 클럽이 자본과 언더라이팅 운영 부분에서 업계 상위권에 복귀하였음을 스탠더드 앤 푸어스에서 인정하면서 클럽 등급을 "A(안정적)"로 회복시키기로 한 결정했다는 반가운 소식을 전해 드립니다. 저희 클럽에게는 아주 의미 깊은

동종 업계 중 서비스 면에서 최고라는 클럽의 명성을 유지하기 위해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다음 해에는 클럽 서비스 이행의 모든 면을 신중히 검토하면서 전세계 사무실들이 역량을 골고루 갖추어서 오늘날의 선주들과 용선자들이 당연한 요구를 충족시킬 보험제품을 클럽 멤버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자본 (CAPITAL)

올해의 리뷰에는 처음으로 자본 항목이 포함되었습니다. 이 항목에서는 저희 클럽이 직면하고 있는 여러 리스크에 대처하는 데 필요한 자본 책정 방법이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유보금과 하이브리드 자본을 합칠 경우 저희 클럽의 현재 자본 수준은 솔벤시(Solvency)의 규제 사항을 충족시킵니다. 여러분의 이사회에서는 자본 보유고가, 특히 현재 모든 선주들이 당연하고 있는 영업상황에서 너무 높아서는 안 된다는 점과 튼튼한 자본위상 유지와 경쟁력 보유 사이에 알맞은 균형이 잡혀 있어야 한다는 점을 익히 알고 있습니다. 2012년에는 2011 보험연도에 비해 자본 수익률을 약간 증가시킬 수 있었습니다. 상황이 허락한다면, 특히 언더라이팅 실적이 우수한 해가 온다면, 저는 향후 자본 수익률을 더 증가시킬 수 있기를 바래 봅니다.

또 하나의 우수한 갱신 (ANOTHER GOOD RENEWAL)

저희 클럽의 탄탄한 재무결과에 힘입어 마켓이 클럽을 신뢰함으로써 클럽은 또 하나의 우수한 갱신을 만들었습니다. 보험료는 톤 당 이동, 약관 변경의 영향 및 재보험비용 증가를 감안한 후 7% 증가하였습니다. 톤수 역시 탄탄하게 증가해서 현재 1억2천 4백만 GT 정도이며 2014년 동안 인도가 약속된 GT는 4백만입니다. 프리미엄과 톤수가 증가한 성장은 적절한 프리미엄 등급을 토대로 성장을 이끌어 내자는 클럽의 각오를 보여줍니다. 2013년은 또한 클럽 용선자들의 톤수 면에서도 우수한 해였는데 현재 8천만 GT 이상으로서 5천만 달러 이상의 프리미엄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위험 관리와 재보험 (RISK MANAGEMENT AND REINSURANCE)

저희 클럽의 재보험 프로그램은 지난 2년 동안 클레임 변동성을 관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따라서 2012년과 2013년 보험연도에 겪은 풀 클레임과 클럽 자체의 2012년 거액 클레임 영향이 완화되면서 클럽의 전반적인 재무 결과가 금년에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저는 2013년 동안 클럽 자체의 모든 재보험을 좋은 조건으로 갱신하였다는 보고를 드리게 된 점을 기쁘게 생각하며 이것을 토대로 클레임의 빈도와 가치의 급증에 대해서도 대규모 보호책이 마련되었습니다. 작년에 전임자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 재보험 프로그램은 건전한 언더라이팅을 대신 하고자 함이 아니고, 갑작스런 클레임 증가 영향으로부터 클럽을 보호해 줄 것입니다.

리스크 관리의 재보험에만 국한 되지 않습니다. 유케이 클럽은 P&I 업계에서 가장 광범위한 손실 예방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브로슈어 및 팸플릿 제작에서부터 우리 맞춤형 방법론을 사용하는 심층 위험 평가 시스템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합니다. 지난 해에는 유케이 클럽 웹사이트가 새로 단장되어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는 정보를 풍부하게 담고 있는 손실 예방 프로그램 섹션에 접속하기가 훨씬 쉬워졌습니다.

규제 (REGULATION)

지난 해에 전임 회장이 클럽이 솔벤시 II(Solvency)의 규정을 충족시키기 위해 취한 여러 조치를 보고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는 클럽 내부 모델 개발과 저희 클럽 그룹의 구조조정이 포함됩니다. 유케이 (유럽) 클럽은 2013년 2월 20일자로 유케이 클럽 회원사들에게 보험 제공사가 되었으며, 유케이 (버뮤다) 클럽의 아시아 지사들이 든 보험은 여기서 제외됩니다. 2013년 동안 유케이(유럽) 클럽의 새 지사로서 홍콩, 일본, 싱가포르 사무실이 허가를 받았으며 2014년에 이 지사들에게 업무가 이전되면서 구조조정이 완료됩니다.

업계 사항들 (INDUSTRY MATTERS)

올해의 리뷰에는 지난 해에 이사회가 처리한 일부 주요 업계 이슈에 대한 배경 설명이 나옵니다. 여기에는 2013년 8월에 발효된 해사노동협약, 유럽과 미국의 이란에 대한 제재확대의 영향이 포함되어 있으며, 가장 최근의 뉴스로는 IG 클럽에서 선박이 미국항을 운항할 때 획득해야 하는 COFR(재정책임증명서)에 필요한 보증서를 미국 해안경비대에 직접 발행하는 계획을 개발하였습니다. 이러한 계획은 물론 IG 클럽에서 그 동안 국제협약제도를 지원하면서 개별국가의 선행 보증서 요청을 거절해 왔던 기존 방침에 반합니다. 여러분의 이사진들은 현재 상태가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자신하는데, 그 이유는 IG 측이 국가 및 지역 수준에서 여러 새로운 재정 보장 부담을 선주들에게 부과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성공적으로 내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배구조 (GOVERNANCE)

지난 해에 저희가 도입한 지배 구조 구조 개편은 잘 진척되고 있습니다. 유케이 (유럽) 이사회가 7회, 유케이 (버뮤다) 이사회가 3회 모였습니다. 저는 이 서면으로 동료 이사님들, 특별히 주요 위원회에서 클럽 문제에 관한 논의를 위해 시간을 할애하시는 분들에게 감사 드립니다. 특별히 부회장단 에릭 안드레씨, 오토마 가스트씨, 니콜라스 잉글시스씨 그리고 마사니치 모루카씨의 지원과 감사위원회 의장인 나이젤 스미스씨에게 감사 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5년간의 회장직 재임 후 물러 나신 디노 카루시스씨 외에도 이사 네분(필립 루이스-드레이퍼스씨, 아게노 준케이라씨, 이 진방씨, 아다만치오스 레모스씨)이 떠나셨습니다. 여러 해에 걸쳐 여러 가지 결정에 중요한 공헌을 하신 이들 모두에게 감사 드립니다.

또 새로 이사 일곱 분을 모시게 되었는데, 2013년에 저희 회사에 합류하신 웨이크 탈랄 카할드 알-아흐매드 알 사바씨, 안젤라 차오씨, 마이클 포스티로폴로스씨, 폴리스 하지오아누씨, 에두워드 루이스-드레이퍼스씨 그리고 폴 워건씨와 리아드 자인씨를 환영합니다. 앞으로 이들의 기여가 클 것으로 기대합니다.

결론 (IN CONCLUSION)

저는 유케이 클럽의 운명의 전환점에서 회장직을 맡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난 5년 동안 저희 클럽에서는 자본 기반을 재구축하고, 언더라이팅에 규정을 도입하며 서비스 제안 내용을 개선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최고의 선주 운영 P&I 클럽이라는 목표에 아주 가깝게 다가설 수 있었습니다. 향후 5년 동안 이사진 및 관리자 여러분과 함께 일하면서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Alan Olivier
Chairman

